

#노인 타임뱅크제 #청년센터... 세계도시, 복지안전망 구축

칭다오시, 타임뱅크제도 확대 시행 파리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에드먼턴시, 주문형 대중교통 시범

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늘었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 증가했으며 교통 소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고립됐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감염병 사태로 끊어진 약한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복지 안전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19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시는 노인돌봄 정책인 타임뱅크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타임뱅크는 시민들이 노인들을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적립하고 나중에 자신이나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상부상조 봉사 프로그램이다.

타임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도시락배



세계 주요 도시들이 감염병 사태로 끊어진 약한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복지 안전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유토이미지

달, 식재료 대리 구매) ▲의료(병원 동행, 약 처방, 약품 구매) ▲목욕(목욕 도움, 목욕 봉사 기관 동행) ▲정결(이발, 집안청소, 세탁) ▲응급조치(각종 응급 상황 시 도움 제공) ▲정신건강(심리적 위로, 말동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봉사자는 만 60세 이후 적립된 시간을 차감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에게 봉사 시간 양도도 가능하다. 시는 작년 4월 '칭다오시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시남구, 청양구, 시하이안신구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지난 4월 기준 3

개 시범구역 내 타임뱅크 자원봉사 등록자는 4804명이며, 봉사 성사 건수는 1539건, 봉사 시간은 약 784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시는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토대로, 금년 5월부터 시 전역에서 타임뱅크제 확대 운영에 나섰다.

프랑스 파리시는 경제 회복 플랜의 일환으로 청년센터 설립과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파리에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오는 9월까지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파리시에서는 2019년 11월~2020년 11월 25세 이하 구직자 수가 32% 증가하고, 소규모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구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앓는 청년들이 생겨나자 파리시는 정부에 매달 500유로의 청년 긴급생활비 지원을 제안했

다. 이에 정부는 실직했거나 학업 중이 아닌 18~25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5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정보 데이터분석 전문회사인 트랜짓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의 평균 경유 수요가 예년 대비 83% 급감했다. 전 세계 11개국 106개 도시의 평균 감소율인 76%보다 7%포인트 더 줄어든 것이다.

이에 에드먼턴시는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예약하면 셔틀버스로 환승 센터까지 무료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한성백제박물관, 韓中 수교 30주년 기획전

중국 산둥박물관과 동시 개막 역사 대표 유물 70여점 엄선

한성백제박물관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산둥박물관과 함께 각 도시의 수천 년 역사를 대표하는 유물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동시에 개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국 산둥성 일대의 선사 시대부터 제나라·노나라에 이르는 광대한 역사를 대표하는 유물 70여점을 엄선해 '황하와 태산: 제노문화전'을 연다.

중국 산둥박물관은 7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성백제 유적에서 출토된 대표 유물 70여점을 공개하는 '백제 한성기의 왕성과 왕릉전'을 개최한다.



황유 청화 호로병(태산삼보). /한성백제박물관

'황하와 태산: 제노문화전'은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와 회랑갤러리(1층)에서 관람 가능하다. 전시명은 산둥성을 흐르는 황하와 산둥성 중부에 자리한 태산을 가리킨다.

한성백제박물관 관계자는 "중국의 고대문명 발상지 황하와 중국인이 천하제일 명산으로 꼽는 '오악지존(五嶽至尊)' 태산이 위치한 산둥이 수천 년에 걸쳐 꽃피운 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대거 전시된다"고 말했다.

신석기시대, 중국 용산 지역에서 발견된 종이만큼 얇은 도자기 '목 긴 검은 잔'을 비롯해 청동기시대 '청동제기', 한나라 때 왕의 시신에 입혔던 '금루옥의', 태산의 세 가지 보물 '태산삼보'(황유 청화 호로병, 운량옥규, 침향사자) 등이 관객을 만난다.

전시는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당 70명 이내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자원 순환사회 위한 재활용사업 추진

젤 아이스팩 순환사업

파주시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젤 아이스팩 순환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SAP)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물에 녹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그대로 강과 바다로 유입되며, 사람이 섭취하는 생물의 먹이가 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냉장·냉동식품 배송이 폭증, 아이스팩의 유통과 폐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파주시는 이를 선별·수거 후 재사용처에 공급해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대상 아이스팩은 업체 상호가

인쇄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깨끗한 젤타입 아이스팩이다. 상호가 인쇄된 아이스팩은 하수도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물이 담긴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6월 중순부터 행정복지센터 4곳과 공동주택 58개소에 전용수거함을 배치해, 1일 평균 1200여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해 관내 사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류 폐기물 감량과 환경 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스팩 순환사업에 시민과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드려요”

서울시, 임대료 감면 임대인 대상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인하 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지급 시기는 10월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맺은 뒤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

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4억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체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20일(화)

음력: 6월 11일

수도권 날씨

25~3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05:26 | 해질 19:50

연천	23/32
동두천	23/33
가평	23/32
파주	24/33
서울	25/34
양평	24/34
용인	25/34
평택	24/34
수원	25/34
인천	26/32
백령도	21/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관방, 소마 공사 부적절 발언에 “매우 유감”
▲산케이 “군함도 관련 유네스코 지적은 ‘트집’...철회해야” /사진 뉴시스

▲중국군, 푸젠성 해안서 대만 침공 상정한 상륙훈련 실시
▲前백악관TF 보건의장 “CDC 마스크 완화 시기상조였다”



▲美, ‘코로나19 허위 정보’ 소셜미디어 업체에 단속 압박 /사진 뉴시스
▲확진자 폭발하는 태국...반정부 시위 열려